

唯物論과 質的 生活 (一)

文君의 反駁에 答함

金永義

科學的 態度가 오는 社會마다 思想的 一大 混沌과 動搖가 잇서왔다. 理論的 思想에 對한 不滿은 盲目的 反抗으로 爆發되고 實際的 結論에 對하야는 萬病通治의 靈藥으로 妄信하였다. 實地로 實驗할 그 結論에 陶醉하여 긴 歷史를 가진 思想까지 無視하였다. 十九世紀 初葉 獨逸의 物質主義者와 精神主義者의 論爭이나, 十九世紀 中葉 英國의 自然主義者와 神學者들의 議論이나, 同世紀 末葉 二十世紀 初葉 米國의 科學者와 哲學者들의 論斷은 그 混沌과 動搖를 表現하였다.

朝鮮思想界에도 이 混沌과 動搖는 왔다. 自然科學을 專攻하는 者는 그 局部的 研究와 斷言으로 社會科學者는 自己들의 局部的 研究와 斷言을 陶醉하여 버린다. 여기에 잇서서 量的 生活을 主張하는 唯物論者와 質的 生活을 是認하는 思想者들의 論爭이 난다. 이 論爭은 卓上戲弄 거리의 議論이 아니고 民衆의 生活에 아모 關係가 업는 學術 問題의 討議가 아니라, 手術臺床 옆에 서잇는 醫師의 梅어쓰의 方向보다 더 큰 結果를 이 論爭의 勝負가 내일 것이다. 朝鮮 大衆의 生活은 量的 生活을 主張하려나?

量的 生活 以上 質的 生活을 目標 삼을 것인가? 이것이 不可避의 問題인 만큼 慎重하고 眞實한 態度로서 明確한 對答, 分명한 斷言을 내려야 한다.

이에 筆者는 文袁泰君에게 眞心으로 感謝한다. 여러 해 海外에 잇든 筆者는 前番 論文에 어셔케 나의 議論을 進行식힐지 躊躇하얏섯다. 이番 君의 글은 筆者의 宗教觀과 人生觀을 좀 더 『非長荒無條』하게 發表할 機會를 주었다. 筆者가 보는 바 將來 朝鮮이 가져야 할 心的 態度를 赤裸裸히 表現케 하였다. 이는 決코 君에게 筆者의 學說과 斷言을 強制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筆者가 가진 生의 哲學을 主張하면서 君과 달은 點을 分明히 指摘하려 한다. 君은 君의 學說이 잇슬 것이요 우리는 그만한 自由까지 업슬 것이 아니다.

먼저 文君에게 한 가지 일오고 쉽다. 筆者는 貧民村에 산다. 나의 經濟的

能力이 이러한 곳 以上에 갈 수 업는 바이나, 비록 將次 나의 取人이 만타 하드라도 이러한 貧人과 同倨하겠다. 참 現實宗教의 生活을 하여보고저 하고, 나의 能力 안에서 理性的 十字架를 지룬다. 이것은 筆者가 海外에서 어든 理想이어나와 現 朝鮮 形便은 이러한 犧牲的 生活을 要求함을 김히 늦것다. 筆者는 아침 아홉 時부터 밤 아홉 時까지 쉼 새 업시 民衆을 爲해 努力하는 生活費로 한 집안을 살려간다. 그러면 文君은 筆者를 얼마나 說解하였는가? 이 얼마나 理論과 實踐을 公然하게 分離하고 高踏哲學者의 口吐할 設敎이나? 그들은 人間의 實踐 生活의 眞의 文化 生活 人間의 未來의 進歩에 對한 刺戟力 又は 理解力까지도 忘矢한 感이 있다. 웨 그런가 하면 그것은 彼等の 代表하는 階級이 社會的 進歩의 主體인 것을 停止한 싸닭이다. 彼等은 恒常 其強한 階級の 利益을 擁護하는 精神的 武器로써 自己의 體系를 作出한다. 그러나 그 階級の 利益이 全社會의 利益과 一致하는 것과 가튼 階級の 所有한 哲學뿐이 進歩性을 有하고 現實性을 有하고 眞理를 有한다.』하고 文君은 論하고 또 다시 筆者의 前論文을 『彼等이 屬한 階級 利益을 좀 더 強固하게 支持하기 爲하여 한 體系 세운 理論에 不過한 것이다.』라고 斷言하였다. 文君 筆者가 한 分子인 貧民을 爲하여 글을 씀이 그다지 憤한가? 이 貧民들 가튼 第一二世紀의 基督教人들이 羅馬帝國의 思想을 支配하였든 史的 事實을 모르나? 또 한 가지 文君에게 일으고 십다.

君이 萬若 筆者의 글을 精讀하였스면 엇지 나의 學論을 『觀念的 人生觀 世界觀』이라 하였는가? 筆者가 力說에 力說을 加한 實在論的 議論과 態度는 忘却하였는가? 筆者의 글이 『長流無味』하였든 싸닭인가? 『無體系的 文字 羅列에』 不過하기에 고만 『觀念』만 엇지 읽었나? 君과 가티 文體 잇게 簡單明瞭한 글을 쓰지 못하는 筆者의 論文일사록 더 精讀하고 批評할 것이 아닌가? 君이 主張하는 物質主義가 宗教를 人間 意識의 欺瞞이라는 舊唯物論도 아니고 宗教를 單物質的 生産關係의 反映이라는 素朴的 唯物論이 아닌 것을 辯明하면서 筆者의 非物質主義가 엇더한 主張인지는 웨 嚴密 觀察하지 안헛는가?